

# 韓國生藥報

本紙는 新聞倫理綱領 및 實踐要綱을 遵守합니다.

發行人兼 李鍾容  
編輯人 張玉煥  
印刷人 田根澤  
編輯局長 田根澤

發行所  
社團 韓國生藥協會  
法人 韓國生藥協會  
<우편번호130-062>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1140-55(大山빌딩 3층)  
☎ 967-8133, 969-6875  
FAX : 965-0643  
(每月 初日發行)

## 지면안내

- 기고, 지황, 백출 전매 개방 마야 ... 3면
- 푸르름을 가꾸는 사람들(태백) ... 4면
- 한약재: 개신을 위한 워크스 ... 5면
- 재배교실(지황) ... 6면

# 규격화를 일반기로 연기

### 행정쇄신위 농민 단순가공 규격품으로 인정토록

4월 1일 시행 예정이던 한약재 규격화 제도가 을 하반기로 연기됐다.

이와 함께 생산농가 또는 생산단체 등이 가공포장한 한약재도 규격품으로 인정하여 의약품 판매업자(한약도매상, 한약업자, 약국개설자 등)에게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될 방침이다.

지난달 15일 행정쇄신위원회는 한약재의 가공포장(의약품)의 수확·정선작업에 불과하고 장기간 유통을 위해 생산농가에서의 단순가공행위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농산품유통관리법(제1안)과 한약재의 단순가공행위를 별도의 업종으로 구분, 「한약재가공법」 신고대상으로 하여 시·군에 신고토록 하는 내용의 제2안을 제시했다.

「규격화법」 제3면(제2안)은 4월 규격화 시행 예정으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 한약재 관리규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국민보건향상과 유통인원화라는 근본취

약재 단순가공행위의 의약품제조업 허가대상에서 제외하여 농산품유통관리법(제1안)과 관리한다. 제1안과 한약재의 단순가공행위를 별도의 업종으로 구분, 「한약재가공법」 신고대상으로 하여 시·군에 신고토록 하는 내용의 제2안을 제시했다.

「규격화법」 제3면(제2안)은 4월 규격화 시행 예정으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 한약재 관리규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국민보건향상과 유통인원화라는 근본취

# 한약재 수입 40% 급증

## 작년 총 1억6천만불

지난해 한약재의 수입이 4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한약재의 수입규모는 1억6천4백16만 달러로 전년도의 1억1천7백36만 달러에 비해 무려 40%가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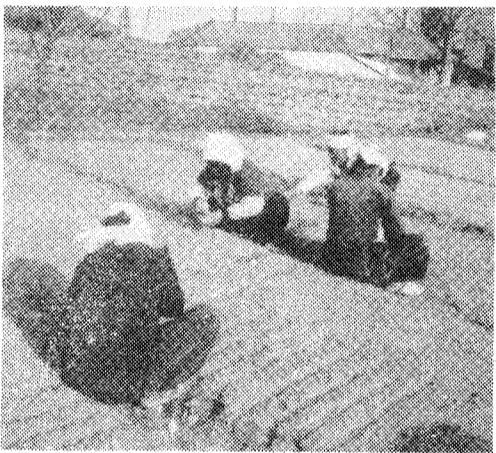
이와 비해 수출은 1천4백66만 달러로 93년의 1천8백40만 달러에 비해 20%가 감소했다. 또한 작년 한해 동안 수입규모가 수출의 11.2배에 달해 한약재의 국내 생산기반이 극히 취약해지고 있음을 반영했다. 이처럼 한약재의 수입이 급증하면서 반대로 수출입 과잉상태를 보이는 것은 값싼 수입 한약재의 범람으로 국내 한약재의 생산량이 매년 자연감소하고 있기 때문

으로 관계자들이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부터 계속된 가뭄으로 약용작물의 생산량이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도 그 원인이다.

우리나라 한약재는 중국 등 외국산에 비하여 품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국산한약재를 선호하고 있으나 실제 국산과 수입한약재 소비자들이 구별하기 어렵고, 일부 한약재의 경우 고가인 외국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국산 한약재가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 생약소비량(매년 20% 증가하고 있음)에도 국산 한약재의 생산 기반은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한약재 수입은 대부분 외국산으로 부터 수입



◇시호 파종하는 광경

되고 밭배이지아, 태극 배트밭 지역에서도 일부 수입되고 있으며, 최근 담류교류 확대 측면에서 북한산 반입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수출은 일본시장이 대부분 차지하고 수출품목은 시호, 산수유, 두충, 황기, 당귀, 구기자 등이다.

한약업계 한 관계자는 겨울 가뭄으로 올해 역시 생산량 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하며, 일부 한약재들이 무분별한 수입을 요구할 것으로 보고 수급조절위원회의 역할이 어느해 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3월 파종기를 앞두고, 계속되는 겨울 가뭄으로 인해 종자의 발아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가뭄으로 습기가 부족하고, 땅은 종자 발아가 어렵고, 따라서 종자선택에 어느해 보다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이 말한다.

무엇을 종자는 절대 피해야 하며 충분한 발아 시험을 거친 후 파종해야 한다.

파종하기 전 발 관리를 세심한 신경을 써야 한다. 토타리를 친 다음 이랑을 만들고 등근로라

이 크게 우려됐다.

또한 한약재의 제조는 일관성과 품질의 신중을 배려, 절기, 열매 등을 채취하여 제천 건조·절단·포장을 하는 단순과정으로 농산물 수확작업의 일부로 볼 수 있으나, 단순가공 없이 출하하게 되면 장기보관이 곤란하고, 일시출하에 따른 가격하락, 유통불량·정제 곤란 등으로 유통상의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는 의견이 높았다.

따라서 행정쇄신위원회는 농민수사부와 보건복지부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조화하는 한편 생산농가의 현황을 조사, 「규격화대상지정고시」 시행을 보류토록 한 것이다.

로 휴표면을 공개 다름은 다음 파종을 한다.

파종방법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종자를 심는 점파와 흙표리는 산파가 있다.

경기도 포천 이인기 소장은 「법정재배법」에 비닐도를 같은 가뭄에는 수분증발을 막고 지온을 올릴 수 있어 효과적이라고 소개한다.

각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개 3월 중순부터 파종에 들어가며 파종물량은 당귀, 길경, 박하, 지모, 일련령, 백지, 한부자, 감황 등이다.

# 정기총회 소집 공고

협회 정관 제 10·11조에 의거 1995년도 제26차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합니다.

- 일 시 : 1995년 3월 31일(금) 오전11시
- 장 소 :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경동웨딩프라자(2층)
- 참가대상 : 협회이사 및 감사, 직할시·도 지부장·공판장장, 시·군·구 사무소장·공판장장
- 의 안 : 94년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보고, 95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편성(안) 심의승인 및 기타행정사항

1995년 3월 1일

##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

## 중앙회원 가입안내

본회에서는 생약생산자, 생산단체, 생약에 관한 조예있는 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회원을 모집합니다.

- ◎대상 : • 영농법인, 작목반, 생약분야단체, 학계, 식품회사 등 생약재에 관심있는 사람 누구나.
- ◎혜택 : 1) 생약에 관한 생산지도  
2) 생약 및 생산가공품의 공동판매 알선  
3) 생약의 수출·입알선  
4) 생약분야 정보제공  
5) 한국생약보(시세포포함)제공
- ◎구비서류 : 1) 가입서양식(본부에 비치)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증명사진 2매  
4) 회비 :  
개인 : 월3,000원×12개월=36,000원  
가입비 10,000원 합계 : 46,000원  
단체 : 월10,000원×12개월=120,000원  
가입비 10,000원 합계 : 130,000원

※가입문의 : 협회사무국 전화 : (02) 967-8133